

# 끈질긴 자아관념 놓아야 해탈

입니다. 내가 가고 없어도 이 책이 남아 법보시가 된다면 다행이겠지요.”

법산 스님의 <금강경> 해설은 위빠사나 수행의 관점에서, 그리고 초기경전을 바탕으로 해설되어 대승권 스님들의 해설과는 차이점이 적지 않다. 한 예로 스님은 이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 4상(相: 관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상(我相)은 인도 브라만의 아트만 사상에서 비롯된 ‘나는 영원하다’라는 자아를 멸론적 견해이며, 인상(人相)은 자아를 부정하는 대신 ‘몸과 마음인 개체가 참나’라는 순세와 유물론에서 비롯된 개아 단멸론적 견해입니다. 중생상(衆生相)은 ‘나는 운명론적으로 이미 정해진 생명체이다’하는 사명파의 존재 숙명론적 견해이며, 수자상(壽者相)은 자이나교의 영혼불멸론적 견해입니다. 지혜와 깨달음을 가로막는 이 네 가지 관념은 고정불변의 자기중심적인 인식상태가 견고하게 바탕(生命識: 7식과 8식을 합친 개념의 識) 내부에 깊이 각인된 상태의 고정관념을 말합니다.”

법산 스님에 따르면 바탕의 본질을 알아서 4상을 타파해야만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바탕이란 무엇일까?

“바탕이란 업의 기록과 기억을 저장하는 자료실인 동시에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생명선, 생명의 뿌리를 말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순간이나마 마음에 비취진 모든 인상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이것은 삶과 죽음, 재생이 있게 하는 존재의 씨앗이며 뿌리입니다. 저장된 바탕(식)은 다음 탄생을 잇는 ‘재생의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고정불변적인 자아관념 즉, ‘나(我)’에 대한 자아의식도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바탕(식)의 성향과 이생에서 태어나 철이 들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접촉하며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쌓아온 관념들이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구속해서 부리는 고삐가 되어버렸다. 법산 스님은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은 먼저 이 끈질긴 자아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말한다. 부처님께서 ‘놓아라, 버려라, 비워라’ 하고 이르는 바도 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금강경



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종의 3조 승찬 대사가 <신심명>에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분별심을 없지니라(至道無難 唯嫌揀擇)’,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버리면 통연히 명백하리라(但莫憎愛 洞然明白)’라 한 법문과 완전히 같은 맥락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수행을 통해 온갖 시비·분별에서 벗어나 무아·무심의 삶을 사는 것이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전해온 여래선(如來禪)의 핵심이다. 여래선이란 조사선과 간화선이 성립되기 이전, 달마 대사로부터 5조홍인 대사가 전한 <능가경> 위주의 달마선(達摩禪)과 같다. 이른바, ‘마음을 보는 한 가지 법이 일체 행을 총섭한다(觀心一法 總攝諸行)’고 하는 관심법, 즉 마음을 주시하는 심념처(心念處) 위주의 위빠사나이다. 간화(看話)니 묵조(默照)니 지관(止觀)이니 하며 구분하지만, 그 어떤 수행법이라도 관법(觀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부처님 수행법이다.

이러한 알아차림 수행이 깊어지면 어떤 경지가 전개될까? 법산 스님은 지속적인 정진으로 보다 향상된 경계에 진입하면 할수록 허잡은 즐거움과 감각적인 쾌락의 추구와 세간적인 즐거움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

“지혜의 정도가 보다 완벽한 경계까지 향상되면 그때 ‘육망의 버림이 행복이다. 감각적인 즐거움을 뛰어넘는 것이 참 행복이다. 모든 법이 여여(如如)하다는 이치를 보는 것이 님바(열반)이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행법인데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는 것 하나라도 생활속에서 실행해 보는 것이 참으로 귀한 세상이다. 인터넷의 바다에는 온갖 경전 해설과 수행정보가 넘쳐나지만 정작 수행하는 불자들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일체의 물질적 정신적 관찰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사랑·분별하지 않고 수용하며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 대주 선사 <둔요도요문론>에서 ‘일체처에 무심한 것이 해탈’이라 한 법어와 한 치도 어긋남이 없는 법산 스님의 말씀은 통해, 여래선과 조사선이 틀어 아님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글·사진=김성우(작가, 본지 논설위원)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96. 구화산 인덕대화상

중국 구화산은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곳곳에 사찰이 자리한 불국선경(佛國仙境)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다. 구화산은 안후이성(安徽省) 서부 양현에 위치한 중국 불교 사대명산 중 하나이다.

중국 구화산을 다녀 온 분들이라면 인덕 스님(사진)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다. 구화산에는 많은 사찰이 있다. 그 중 기원사는 구화산 4대 총림 중 하나로서, 기원선사(禮圓禪師)라고도 불린다. 구화산 기원사는 “인도불교의 성지로 석가모니 부처가 20여 년 불교를 선포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얻어진 이름이다.

인덕(仁德) 스님은 현 중국 정부 이후 기원사의 첫 방장을 지낸 분이다. 2001년 8월 23일 스님이 입적한 이후로, 기원사에는 아직까지 새로운 방장이 추대되지 않고 있다. 스님은 구화산 방장이

모택동은 스님의 말을 들은 후, 유·불·선 3교 가운데서 불교를 선택했다.

“유교는 계급차별이 있어 안되며, 도교는 이 세상을 버리고 노동하지 않으며, 단전복기로 신선이 되기만을 바랐으므로 현실적인 종교가 되지 못하는데, 불교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고 말해 노동을 강조하면서도 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만들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불교 선택의



가 정리돼 있다.

특히 장보고는 해상왕으로 세계의 물길을 잘 알아, 파도를 휩쓸러 죽게 된 사람들을 건져 법화원에 살도록 했으며, 연교가 없는 사람은 가정을 이워주고 농토까지 배풀어 살길을 만들어 줬다.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 일본의 원닌(圓仁) 스님이 중국으로 유학을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장보고 장군이 그를 구해 장안까지 구경시키고 당나라 불교를 수임하게 했다. 그가 당시 작성한 일기는 세계적인 구도자로 읽는 사람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

인덕 스님은 마침내 99지장보살의 성상을 설계해 중국불교에서 가장 거창한 문화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수년전 이 성상이 완성되어 세계의 구도자들이 한데 모여 추모행사를 실천한 일이 있다.

### 구화산 4대 총림 기원사 첫 방장... 모택동에게 불교 권해

되기 전부터 불교대학 학장으로 많은 인재를 길러 왔는데,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학대를 받아 왔던 분이다.

원래 학자였던 인덕 스님은 어떠한 사상도 불교를 능가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주의·사상에 배척당하고 죽게 된 인간이라도 부처님 정신 속에서 되살아난다면 사상을 초월한 초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스님의 평소 지론이었다.

어느 날 모택동이 스님에게 “종교가 이 세상에서 필요합니까?”라고 물었다.

스님은 “종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대 제왕이 8만대장경을 만들었고, 학인들을 배출했다. 3황 5제 요순우탁 이후로 전한, 3국 5호 16국, 5대 10국 가운데서 불교를 배척한 임금은 넷뿐인데 모두가 단명횡사했고 왕조는 100년 역사도 갖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유였다. 구화산은 1200년 전 신라왕자 김교각(金喬覺, 696~794)이 와서 생지장이 된 곳이기 때문에 주지가 돼 성지개발에 몰두했고, 한 국관광객을 유치해 김교각 스님의 역사를 유별나게 부각시켰다.

그뿐 아니라 홍콩과 대만 불자들의 방문을 허락하고 전 세계 화교들을 유치해 구화산 전체를 살 아있는 역대 선지식들의 모도도 량으로 만들었다. 한국의 생지장뿐 아니라 중국의 생지장을 자그마치 18분이나 복원해 모셨다.

한편 황유복씨는 여기에 힘입어 한국 사람으로 중국에 들어와 공부한 스님들과 유명인의 역사를 정리한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얻었다. 논문에는 백일법문의 거장 무상 스님, 화엄철학의 거두 의상 스님, 유식학의 태두 원족 법사, 삼론학의 거장 승랑 대사, 법패의 전수자 철감 국사, 무염 국사, 장보고 등의 이야기가

또한 1997년 11월 4일 경주불국사에서 중국서 조성한 높이 3.2m, 무게 2.8t의 청동 지장보살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지장보살상 봉헌은 인덕 스님이 불국사를 방문해 봉헌의사를 밝히면서 추진했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월하 종정, 월주 총무원장, 설정 중앙총회 의장, 김종호 경주 김씨 대종회장 등이 참석했다.

1996년 부처님오신날에 중국 안후이성 웨이리양위(回良玉) 성장이 성정부 차원에서 지장보살상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웨이리양위 성장은 “신라 왕자님을 1300년 뒤에 고향에 모시는 것은 양국 문화교류 차원에서도 큰 뜻을 지닌다”고 말했다.

현재 기원사에서는 김교각 스님의 정신을 받들며, 많은 스님들이 수행정진하고 있다. 또, 인덕 스님의 유체는 기원사의 탑원에 봉안돼 있다.

# 빙의의 시대 증상을 바로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빙의의 시대**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접근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의 시대 2**  
<빙의의 시대>를 출간한 뒤 수많은 독자와 빙의 환자, 또 그들의 보호자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1권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귀신에 접근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조기퇴치의 방법,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저자 / 일광(逸廣) 선생**  
오로지 천지인(天地人)의 궁극적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전국 산하를 떠돌며 수행하던 일광 선생이 문득 회통의 밝은 빛을 보았으니, 오대산의 한 토굴에서였다. 그 뒤로 사후세계가 확연히 드러나며 영령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역할이 그들 귀신들을 안온한 세계로 천도해 다시는 인간세계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빙의의 시대)는 그러한 마음에서 저술한 일광 선생의 첫걸음이다.

- 빙은 알릴수록 양약이 나타난다!**
- 정신질환자 ●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무당 생활이 싫으신 분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기우눌림에 시달리시는 분
  - 환청이나 환각으로 고생하시는 분
  - 귀신이 몸에 있다고 고민하시는 분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좌골신경통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시는 분
  - 만성 신경화증 환자 ● 말기 간암 환자
- ※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책을 읽은 뒤에 상담해주시고.